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또래관계 질의 관계: 공격성과 정서인식 역량의 조절된 매개효과

백성은
동양대학교 경찰행정·범죄심리학과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Parenting Attitude and Adolescents' Peer Relationship Quality: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Aggression and Emotion Recognition Ability

Sung-Eun Baek

Department of Police and Criminal Psychology, Dongy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에 대한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와 또래관계 질 간에 공격성과 정서인식 역량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의 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먼저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문제 검증 위해 PROCESS SPSS macro로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와 또래관계 질 간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와 공격성 사이에서 정서인식 역량의 조절효과, 부정적 양육태도와 또래관계 질 간의 관계에서 공격성과 정서인식 역량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와 또래관계 질 간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부분매개 효과가 유의했다. 둘째,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가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인식 역량의 조절효과가 유의했다. 셋째,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와 또래관계 질 간의 관계에서 공격성과 정서인식 역량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했다. 본 연구 결과는 자녀에 대한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와 관련해 부정적 또래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청소년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확장, 이들을 위한 공격성의 감소 및 정서 인식 역량 증대를 통한 상담적 개입의 가능성을 제정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에 포함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sought to examine whether aggression mediates, and the ability to recognize emotions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of adolescents and the quality of their peer relationships. The data of adolescents who participated in the 4th year survey of the '2018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was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subjected to correlation analysis. The mediating effect of agg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and the adolescents' peer relationship quality,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ability to recognize emot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and aggression, an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the combination of those two models were analyzed using the PROCESS SPSS macro. The results suggested that aggression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and the adolescents' peer relationship quality. The findings revealed that the ability to recognize emotions had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and aggression. Finally, aggression and ability to recognize emotions had a moderated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egative parenting attitude and the peer relationship quality of the adolescents. Practical implications for counseling intervention using emotion recognition capabilities for aggressed adolescents were suggested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also discussed.

Keywords : Adolescents, Negative Parenting Attitude, Peer Relationship Quality, Aggression, Emotion Recognition Ability, Moderated Mediating Effect

이 논문은 2022년도 동양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Sung-Eun Baek(Dongyang Univ.)

email: whsistar@dyu.ac.kr

Received May 28, 2024

Revised June 25, 2024

Accepted August 2, 2024

Published August 31, 2024

1. 서론

또래관계 질은 비슷한 연령의 친구와 질적으로 상호작용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1]. 청소년 또래관계 질은 해당 시기 정신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특히 또래로부터의 거절과 소외감은 외로움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 학교 적응과 높은 관련성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고 [2], 이후 성인기 대인관계의 어려움, 직장생활, 결혼생활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3]. 이처럼 청소년기에 또래관계를 잘 맺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발달적 과제이며, 청소년기 또래관계 문제에 조기 개입하지 않고 방치 시 이후 성인기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요인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청소년을 선정한 이유는 발달단계 상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통해 자신의 정체감을 찾는 것이 주된 과업인 시기이다. 하지만 국내의 과열된 교육 경쟁, 가족 중심의 문화적 분위기 등으로 이 시기 부모가 자녀 생활을 관리하는 경우가 빈번함을[4] 고려해 국내 청소년의 경우 부모 양육행동이 여전히 자녀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 가정하였고 이로 인한 청소년의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부모 양육태도는 청소년 자녀의 전반적 적응 및 정신건강 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또래관계 질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들 중 무엇보다 중요한 변수로 여겨지고 있다[5]. 가까운 타인과 정서적 유대를 통해 형성된 성격구조를 애착이라 정의할 수 있는데 주양육자의 양육적 민감성과 접근성은 자녀에게 안전기지로 작용하며, 이것은 성인기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고,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 형성의 근간이 된다.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표상 및 관련 정서에 대한 조절능력을 포함하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생애초기부터 맺어온 부모와의 상호작용 경험은 자녀가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또래관계의 질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요인으로 평가 된다[6]. 뿐만 아니라 부정적 양육행동은 자녀로 하여금 스스로를 부적절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을 어렵게 해 부정적 또래관계 형성을 비롯한 취약성을 야기할 수 있다[6].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받는 행동 문제 중 하나로 공격성을 들 수 있다[7]. 공격성은 생명체에 신체적, 심리적으로 고통과 상처를 주는 반사회적 행동인데, 청소년

년의 또래관계를 비롯해 전반적 적응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5]. 청소년기에도 자녀는 여전히 부모와의 관계 경험을 모델 삼아 불안정한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지표(indicator)로 삼는다[7]. 구체적으로 사회학습이론적 관점에[8] 따라 자녀의 공격성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관찰학습과 인지적 개입을 통해 습득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관련 연구 역시 부모 양육태도가 무관심, 거부적, 적대적이라고 인식하는 청소년일수록 공격성이 높음을[9] 언급한다.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가 증가할 경우, 자녀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거나, 자신이 타인에게 대적할 힘이 없다고 느껴 공격성[10]의 경험이 증대됨을 지적한 연구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정리하면,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기 및 타인 관련 사고와 정서에 관여하기 때문에 또래관계 질을 비롯한 전반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정신역동과 애착이론적 접근에서는 순응적이지 못한 양육환경과 관련된 대상의 실제적 혹은 상징적 상실은 자녀로 하여금 유기되었음에 대한 우울감을 비롯해 자신에 대한 부적절감, 대상에 대한 원망, 공격성, 죄책감 등을 동시에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본다. 한편 순응적 돌봄에 대한 욕구는 본능적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충족되지 못한 양육적 돌봄에 대한 결핍은 자녀로 하여금 늘 애정을 갈구하게 만드는 동시에 스스로가 대상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무의식적 두려움을 느끼게 해 결국에는 자기비난, 분노 등의 감정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 즉, 부모에 의한 부정적 양육행동은 그 자체로 자녀에게 좌절감을 주기도 하지만 자기비난, 분노, 죄책감 등을 유발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정적 정서에 대한 대처를 어렵게 만들어 더욱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 부정적 양육행동과 관련된 부정적 정서의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혹은 추가 변수에 대해 탐색해 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모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완충할 수 있는 부가 요인으로 정서인식 역량을 고려하였다.

정서인식 역량이란 상대방의 정서를 인식하고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그 과정은 보통 정신적 사고, 감정, 신체적 상태를 통해 이루어진다[11]. 타인 정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위해서는 정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는 경우 정서 인식의 명확성이 저하될 수 있다[12]. 관련 연구에서도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된 문제행동 경향을 보이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정서적 어휘를 인식하는 능력이 낮음을 보고하고[12], 특히 부정적인 정서 자극의 인

식에서[13] 그 경향이 더 두드러짐을 보고한다. 뿐만 아니라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청소년의 경우 부정 정서를 경험하는 중임에도 자신이 느끼고 있는 정서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13]도 있다. 즉 청소년의 공격적 성향과 정서 인식 역량간 관련성을 가정해 볼 수 있겠다. 부모가 제공하는 양육의 질과 자녀의 정신건강 사이 밀접한 상관은 관련 연구에서 꾸준히 제시되는데, 구체적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역기능적 양육 경험의 영향력이 정서인식 역량의 미숙함으로 드러나고 [14] 이는 대인관계 취약성으로 작용할 수 있음[15]을 언급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정서 인식 역량을 함양해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또래관계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할 것으로 가정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 자녀의 공격성이 또래관계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인식 역량의 조절 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고자 조절된 매개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또래관계 질 간의 관계를 공격성이 매개하는가?
- 연구문제 2.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공격성 간의 관계를 정서인식 역량이 조절하는가?
- 연구문제 3.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공격성을 매개로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정서인식 역량이 조절하는가?

2. 방법

2.1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를 위해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조사 2018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이하 KCYPS 2018)의 자료 중 제4차년도 즉, 2018년도에 중1이었던 학생들의 2021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패널 자료는 기술 및 추리적 분석에 모두 이용 가능해 주어진 변인간 관계, 추세(trends)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는데 유용하다[16]. 4차년도 원패널 자료 중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에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인 325명의 것은 제외 후 총 2265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이 중 남자는 1217명(53.7%), 여자는1048(46.3%)이었다.

2.2 연구도구

2.2.1 부모 부정적 양육 태도

KCYPS 2018의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양육태도 척도[17] 24문항 중 거부(4문항), 강요(4문항), 비밀관성(4문항)의 3개 하위요인에 속하는 문항으로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를 구인하였다. 본 척도는 4점 Likert-type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값의 평균을 사용하였고, 각 하위요인의 내적 일치도는 거부 .81, 강요 .73, 비밀관성 .79로 나왔다.

2.2.2 공격성

KCYPS 2018에서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18]에서 공격성 측정을 위해 활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13문항으로 이루어진 4점 Likert-type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적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85로 나왔다.

2.2.3 정서인식역량

KCYPS 2018의 RMET(Reading the Mind in the Eyes Test) 28개 문항 응답값을 정서인식 역량 점수로 환산한 값(0~28)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RMET는 사람의 눈 부위를 묘사하는 일련의 사진을 제시 후, 사진 속 인물의 감정 상태를 4개 보기 중 선택하게 하는 조사이다 [19]. 본 척도의 경우 응답자의 동의 정도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내적 일치도 산출에 적합하지 않다.

2.2.4 또래관계 질

KCYPS 2018의 또래관계 질 척도[20] 13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또래관계의 질을 2개의 요인(긍정적 또래관계, 부정적 또래관계)과 6개의 하위요인(상호친밀감, 사회적지지, 또래관계 만족, 갈등과 대립, 일방적 주도, 철회와 고립)으로 가정한다. 본 척도는 4점 Likert-type 척도로 역채점 문항을 보유한다. 선행연구[20]에 따르면 또래관계 질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며 갈등이 낮은 것이 또래관계의 질이 좋다는 것을 나타내며 갈등이 높다는 것은 그 반대임을 주장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9번~13번 문항을 역채점한 후 응답값의 평균을 산출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85이다.

2.3 분석방법

SPSS 21.0을 통해 주 연구문제 검증에 앞서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행했다. 그 후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와 또래관계 질 간에 공격성과 정서인식 역량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PROCESS SPSS macro를 활용하였다. 먼저 Model 4로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와 또래관계 질 간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Model 1으로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와 또래관계 질 간 정서인식 역량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최종적으로 Model 7을 통해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와 또래관계 질 간 공격성과 정서인식 역량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간접효과는 부스트랩 신뢰구간을 형성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조절효과는 PROCESS에서 제공하는 Pick a point 방식으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PROCESS는 기본값으로 조절변수 수준이 16퍼센트(상, M-1SD), 50퍼센트(중, M), 84퍼센트(하, M+1SD)에 따라 변화하는 독립변수의 효과 값을 제공한다. 독립변수의 효과가 조절변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면 조절변수의 전 구간에서 독립변수의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조절변수를 상, 중, 하의 수준으로 분류해 조절효과의 유의성을 명확하게 검증하고자 Pick a point 방식을 제안한다[21]. 조절된 매개효과는 부스트랩 방법으로 검증후, Pick a point 방법으로 정서인식 역량에 따라 매개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3. 결과

3.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Table 1을 보면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와 공격성($r=.41, p<.001$) 사이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왔으나, 정서인식 역량($r=-.14, p<.001$) 및 또래관계 질($r=-.37, p<.001$)과는 부적 상관이 확인되었다. 공격성은 정서인식 역량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1	2	3	4	M	SD	skewness	kurtosis
1	1				1.97	1.85	.54	3.12
2	.41**	1			.49	.56	.22	.41
3	-.14**	-.11**	1		.33	.25	-.39	-.12
4	-.37**	-.39**	.09**	1	.20	-.38	-1.10	.05

1: Negative Parenting Attitude, 2: Aggression, 3: Emotion Recognition Ability, 4: Peer Relationship Quality, ** $p<.01$

($r=-.11, p<.001$), 또래관계 질($r=-.39,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정서인식 역량과 또래관계 질 ($r=.09, p<.01$) 사이 유의한 정적 상관이 확인되었다.

3.2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와 또래관계 질 간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역량의 매개효과

Table 2를 보면 부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공격성을 증가 시켰고($b=.48, p<.001$), 부정적 양육태도가 자녀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부적 영향도 유의하였다($b=-.22, p<.001$). 부정적 양육태도가 공격성을 거쳐 또래관계 질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도 유의하였다($b=-.10, p<.001$).

Table 2. Mediation effect outcome

x	y: 2			y: 4				
	B	SE	t	B	SE	t	LLCI	ULCI
1	.48	.02	21.65***	-.22	.02	-12.44***	-.25	-.18
2	-	-	-	-.21	.02	-13.80***	-.24	-.18
Effect	B	SE	95% Confidence Interval					
			LLCI			ULCI		
Total	-.31	.02		-.35			-.28	
Direct	-.22	.02		-.25			-.18	
1→2→4	-.10	.01		-.12			-.08	

1: Negative Parenting Attitude, 2: Aggression, 3: Emotion Recognition Ability, 4: Peer Relationship Quality, x= dependent variable, y= independent variable, *** $p<.001$

3.3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와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역량의 조절효과

Table 3을 보면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와 공격성 간 관계를 정서인식 역량이 조절하였다($b=-.46, p<.001$). 조절변인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공격성의 특정 값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조건부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상, 중, 하 수준으로 나누어 단순기울기 분석을 실시하였다(Fig. 1).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가 특정 수준 이상인 경우 즉, Fig. 1에서 x가 대략 1.75 이상인 부분은 부모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통제, 거부, 비일관적 양육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들의 경우 정서인식 역량이 높을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지는데, 이는 정서인식 역량이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를 조절하여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를 줄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3. Moderation effect outcome

x	y: 2				
	B	SE	t	LLCI	ULCI
1	.72	.06	11.45***	.60	.85
3	.75	.22	3.48***	.33	1.17
1X3	-.46	.11	-4.32***	-.66	-.25
3		Effect			SE
.33(M-1SD)		.57			.03
.55(M)		.48			.02
.76(M+1SD)		.38			.03

1: Negative Parenting Attitude, 2: Aggression, 3: Emotion Recognition Ability, x= dependent variable, y= independent variable,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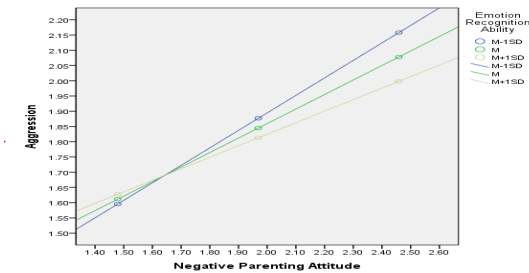


Fig. 1. The moderating effect of emotion recognition ability on negative parenting and aggression

3.4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와 또래관계 질 간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역량의 조절된 매개효과

Table 3을 보면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b=.72, p<.001$), 정서인식역량이($b=.75, p<.001$) 각각이 공격성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유의하다. 또 부정적 양육태도와 정서인식 역량의 상호작용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다($b=-.46, p<.001$). Table 2를 보면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가 또래관계 질($b=-.22, p<.001$)에 미치는 직접효과, 공격성의 또래관계 질($b=-.22, p<.001$)에 대한 직접효과가($b=-.21, p<.001$) 모두 유의하다. Table 4를 보면 بوت스트랩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따라서 정서인식 역량이 높을수록 부정적 양육태도 수준이 높더라도 공격성의 수준이 낮아지고, 정서인식 역량을 통해 상쇄된 공격성이 또래관계 질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

Table 4. Moderated mediation effect outcomes

Moderated mediating effect	SE	95% Confidence Interval	
		LLCI	ULCI
.094	.02	.05	.14

정서인식 역량의 상, 중, 하 수준에서 살펴본 간접효과 검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모든 수준에서 정서인식 역량의 조절효과에 따른 간접효과와 بوت스트랩 95% 신뢰구간은 0을 포함하지 않았다. 즉, 모든 수준에서 정서인식 역량의 조절에 따른 부모 부정적 양육과 또래관계 질 간의 공격성의 간접효과가 유의하다.

Table 5. Significance test of moderated mediation effect by bootstrapping

Emotion Recognition Ability	Indirect effect	SE	Confidence Interval	
			LLCI	ULCI
.33(M-1SD)	.57	.03	.51	.64
.55(M)	.48	.02	.43	.52
.76(M+1SD)	.38	.03	.32	.44

4. 논의

양육자로부터 정서적으로 수용된 경험은 자녀의 건강한 자기상과 대인관계 형성 및 유지의 핵심요인이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자녀가 늘 부모의 사랑에 목말라하게 만들며, 불안정감을 느끼게 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녀가 감정을 다스리거나 혼자 견디는 능력을[22] 학습할 기회를 막는다. 뿐만 아니라 양육자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기상 및 친밀한 대상관계에 대한 부정적 표상을 형성하게 한다. 그 결과 자녀는 이후 사회적 맥락에서 자신 및 상대의 감정을 헤아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에도 서툴러 공격성의 표출과 같이 다소 미숙한 대처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한편 부모 양육태도 관련 연구들은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와 공격성 간의 관계를 정서인식 역량이 조절하는 것으로 주장하며, 만약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한다 해도 자녀의 정서인식 역량이 높을 경우 공격적 방식이 아닌 좀 더 성숙한 양상으로 조절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자녀 또래관계 질 사이 공격성과 정서인식 역량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가정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와 또래관계 질 간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부분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다. 즉 부모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자녀의 공격성 수준이 높았고, 이는 자녀의 또래관계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애착은 생애 초기 양육자-자녀 사이 정서적 유대감을 기반으로

형성되며 이후 대인관계에서도 그 양상이 유지되는 심리적 기제이다. 이에 양육자 즉,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또래관계 질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 양상을 보일 때 자녀가 친구들에게 공격적 양상을 보이고 그로 인해 자녀의 또래관계의 질 또한 저해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살펴본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공격적 행동이 부모의 양육 태도와 자녀의 교우 관계 양상을 매개함을 밝힌 선행연구[23]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둘째,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와 공격성 간의 관계를 정서인식 역량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왔다. 구체적으로 정서인식 역량이 높을수록 부정적 양육태도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한다 해도 개인의 정서인식 역량이 높다면 공격적 방식이 아닌 다른 양상으로 완충해 표현함을 드러낸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양육 태도와 정서를 조절하고 인식하는 것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24]와 맥을 같이 한다. 뿐만 아니라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와 관련된 공격성 문제를 보이는 청소년을 위해 정서 인식 역량 증대를 통한 상담적 개입의 가능성을 제공 하였다.

셋째,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와 또래관계 질 간의 관계에서 공격성과 정서인식 역량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즉, 정서인식 역량의 수준이 높아지면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가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격성의 크기가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공격성 등의 외현화된 문제행동이 드러날 가능성을 감소시킨다는 선행 연구[25]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본 연구 결과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에게 정서인식 역량의 완충 역할을 밝힘으로써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를 통해 유발될 수 있는 청소년의 공격성을 낮추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이에 본 연구 결과가 자녀 부적응의 원인을 양육적 박탈감과 관련된 표상 및 정서조율의 문제로 개념화하는 정신역동과 애착 이론[26]의 가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특히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 및 그와 관련해 자기 및 친밀한 대상관계에 대한 부정적 표상을 형성해 또래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들과 상담 시 이들의 공격성이 아닌 정서인식 역량에 초점 맞출 필요가 있음을 경험적으로 드러낸 의의가 있다. 즉, 청소년의 또래관계 갈등 해결을 위해 타인에 대한 인식 및 신뢰감, 자신에 대한 인

식 및 자신감, 거부에 대한 두려움 등을 탐색하는 것이 이와 관련된 맥락에서 공격성 등을 표출하고 싶어질 때 선행되어야 함을 제안한 의의가 있다. 한편 관련 연구 [27]에 따르면 또래 정서 코칭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정서인식 역량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한다. 따라서 청소년 상담 시 이런 프로그램의 병행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패널자료의 사용으로 KCYPS 2018의 4차년도 자료만을 분석해 얻은 것으로 결과를 일반화 및 확대 적용하는 것이 제한적이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 연령을 구분해 분석 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 살펴보는 작업도 필요해 보인다.

References

- [1] K. S. Rook, "The negative side of social interaction: Impact on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46, No.5, pp.1097-1108, 1984.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46.5.1097>
- [2] M. J. Zimmer-Gembeck, T. A. Hunter, R. Pronk, "A model of behaviors, peer relations and depression: Perceived social acceptance as a mediator and the divergence of perception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Vol.26, No.3, pp.273-302, 2007.
DOI: <https://doi.org/10.1521/jscp.2007.26.3.273>
- [3] L. J. Woodward, D. M. Fergusson, "Childhood peer relationship problems and later risks of educational under-achievement and unemploy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Vol.41, No.2, pp.191-201, 2000.
DOI: <https://doi.org/10.1017/S002196309900520X>
- [4] M. H. Ahn, H. S. Shin,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child depression: A mediation model",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9, No.2, pp.227-253, 2012.
- [5] S. Y. Kim, D. H. Ahn, "Influences of parenting styles on middle school students' depression: Mediating effects of academic helplessness and social withdrawal", *Korean Education History*, Vol.39, No3, pp.177-203, 2021.
DOI: <https://doi.org/10.22327/kei.2021.39.3.177>
- [6] U. Bronfenbrenner, "Toward an experimental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Vol.32, No.7, pp.513-531, 1977.
DOI: <https://doi.org/10.1037/0003-066X.32.7.513>
- [7] B. Soenens, M. Vansteenkiste, "A theoretical upgrade of the concept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Proposing new insights on the basis of self-determination theory", *Developmental Review*, Vol.30, No.1, pp.74-

99. 2010.
DOI: <https://doi.org/10.1016/j.dr.2009.11.001>
- [8] A. Bandura,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3.
DOI: <https://doi.org/10.2307/1227918>
- [9] S. H. Kim, H. M. Kim, "Effects of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s on Adolescents' Aggressiveness: Mediation Effects of Peer Attach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Vol.18, No.2, pp.642-651. 2020.
DOI: <https://doi.org/10.5392/IJCA.2018.18.02.642>
- [10] R. C. Martin, E. R. Dahlen,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in the prediction of depression, anxiety, stress, and ange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39, No.7, pp.1249-1260. 2005.
DOI: <https://doi.org/10.1016/j.paid.2005.06.004>
- [11] S. M. Kim, S. H. Hong,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Identification and Expression Abilitie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Rejection Sensitivity and Aggression", *Th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Counseling*, Vol.13, No.4, pp.409-429. 2014.
- [12] M. L. Speltz, M. DeKlyen, R. Calderon, M. T. Greenberg, P. A. Fisher, "Neuro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test behaviors of boys with early onset conduct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Vol.108, No.2, pp.315-325. 1999.
DOI: <https://doi.org/10.1037/0021-843X.108.2.315>
- [13] S. J. Lee, S. Y. Ko, C. G. Lee, "The Research on the Validation of the Trait Meta-Mood Scale: The Domain Exploration of the Emotional Intelligenc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11, No.1, pp.95-116. 2004.
DOI: <https://doi.org/10.1037/0021-843X.108.2.315>
- [14] T. D. Fischer, M. Smout, P. Delfabbro,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flexibility, early maladaptive schemas, perceived parenting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Contextual Behavioral Science*, Vol.5, No.3, pp.169-177. 2016.
DOI: <https://doi.org/10.1016/j.jcbs.2016.06.002>
- [15] R. D. Freed, L. M. Rubenstein, I. Daryanani, T. M. Olino, L. B. Alloy,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Functioning and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The Role of Emotional Clarit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45, No.3, pp.505-519. 2016.
DOI: <https://doi.org/10.1007/s10964-016-0429-y>
- [16] L. Pederson, E. Vingilis, C. Wickens, J. Koval, R. E. Mann, "Use of secondary data analyses in research: Pros and Cons", *Journal of Addiction Medicine and Therapeutic Science*, Vol.6, No.1, pp.58-60. 2020.
DOI: <https://doi.org/10.17352/2455-3484.000039>
- [17] T. M. Kim, E. J. Lee,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Parents as Social Context Questionnaire for Adolescents: PSCQ_KA",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4, No.3, pp.313-333. 2017.
DOI: <https://doi.org/10.21509/KJYS.2017.03.24.3.313>
- [18] B. H. Cho, K. H. Lim,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motional or Behavioral Problems Scal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15, No.4, pp.729-746. 2003.
- [19] S. Baron-Cohen, S. Wheelwright, A. Spong, V. Scahill, J. Lawson, "Are intuitive physics and intuitive psychology independent? A test with children with Asperger Syndrome", *Journal of Developmental and Learning Disorders*, Vol.5, pp.47-78. 2001.
- [20] S. M. Bae, J. Y. Hong, M. H. Hwang, "A Validation Study of the Peer Relationship Quality Scale for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2, No.5, pp.325-344. 2015.
- [21] A. F. Hayes.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2013.
DOI: <https://doi.org/10.1111/jedm.12050>
- [22] D. W. Winnicott, "Introduction to The Child, the Family, and the Outside World", In L. Caldwell & H. T. Robinson (Eds.), *The Collected Works of D. W. Winnicott: Volume 7*, New York, NY: Oxford Academic, pp. 1964-1966, 2016.
DOI: <https://doi.org/10.1093/med:psych/9780190271398.003.0017>
- [23] Y. S. Kim, "Influence of Attachment Behavior in Psychosis", *Korean Journal of Schizophrenia Research*, Vol.25, No.2, pp.23-31. 2022.
DOI: <https://doi.org/10.16946/kjsr.2022.25.2.23>
- [24] L. D. Giunta, C. Lunetti, G. Gliozzo, W. A. Rothenberg, J. E. Lansford, et al., "Negative Parenting, Adolescents' Emotion Regulation, Self-Efficacy in Emotion Regulation,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Vol.19, No.4, pp.2251. 2022.
DOI: <https://doi.org/10.3390/ijerph19042251>
- [25] D. Gresham, *Aggression in adolescents: an investigation of internalising emotions,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clarity*. Doctoral Dissertation, Monash University. Australia, 2017.
DOI: <https://doi.org/10.4225/03/58acec58ae4d6>
- [26] R. C. Campos, A. Besser, S. J. Blatt, "The Relationships Between Defenses and Experiences of Depression: An Exploratory Study", *Psychoanalytic Psychology*, Vol.28, pp.196-208. 2011.
DOI: <https://doi.org/10.1037/a0022420>
- [27] G. S. Cheon, E. G. Koh, "Effect of the Peer Emotion Coaching Program on the High School Students' Emotional Recognizing, Empathy and Emotional Regul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Vol.18, No.6, pp.691-705. 2018.
DOI: <https://doi.org/10.5392/IJCA.2018.18.06.691>

백 성 은(Sung-Eun Baek)

[정회원]



- 2021년 2월 :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심리학박사)
- 2016년 3월 ~ 2021년 2월 : 서강대학교 열린상담소 책임연구원
- 2021년 3월 ~ 현재 : 동양대학교 경찰행정·범죄심리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부모-자녀 관계, 정신건강 선별 검사